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행 동지 십+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순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나는 양의 문 I

(요 10:7-9)

이종윤 원로목사

유대사회의 양의 우리는 주로 산비탈에 만드는데 돌로 담을 쌓고 문은 만들지 않으므로 목자가 문을 지키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떼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문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은 자물쇠 하나로는 안 되겠다고 하며 두 개, 세 개를 만들어 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튼튼한 문이라도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양들은 반드시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반드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 유일한 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요 10:9상)

교회에 들어올 때는 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만일에 기독교인 가운데 다른 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혼합주의자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혼합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기독교인이야말로 가장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종교를 가졌다면 자기가 믿는 그것이 절대이고 다른 것은 용납하지 않아야 그것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인정하고 자기의 종교도 그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이 됩니다.

기독교인은 타종교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교회가 반드시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구도자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결코 구도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찾은 사람들입니다. 도를 만난 사람들이며 하나님 앞에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를 두고 기독교를 위한 Pre-Evangelism, 다시 말해서 전도하기 이전에 필요한 것들로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이데올로기나 다른 종교는 질문을 일으킵니다. 가령 불교는 삶이 무엇인가? 늙는 것이 무엇인가? 병드는 것이 무엇인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갑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불교의 구원은 니힐, 무(無)입니다. 만일 그들이 구원을 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불교는 끝없는 질문을 일으키고, 성경은 대

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는 논에 씨를 뿌리기 전에 흙을 갈 듯이 전도를 하기 위해 발 같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민족에 이처럼 복음이 빨리 전해진 것도 사머니즘, 무당 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당 종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므로 그 종교심에 참 진리를 넣어주니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민족에 사머니즘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이와 같이 빨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무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생각하기에는 불교도 유교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금방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종교심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진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 다른 진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2.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객관적인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여기 있으니 이 길은 가는 것이 좋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께 가는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분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 10:20). 그 길은 New and living way, 즉 새롭고 살 길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새롭게 길이 되셨고 살 길이 되셨으므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8). 이 길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다음주 계속)





맥추감사절 麥秋感謝節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로서 한국 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麥秋節)은 오순절(五旬節) 혹은 칠칠절(七七節)이라고도 불렀습니다(출 23, 34장, 레 23장, 신 16장).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수여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이란 명칭은 신약성경에만 나옵니다(행 2:1, 20:16, 고전 16:8). 오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면, 맥추

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지킨 절기입니다. 따라서 초실절(初實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출 34:22).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째인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맙시다.

(편집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 23:10)

오늘은 맥추감사절

I · II · III부 예배 시 성찬식과 맥추감사헌금 드려

오늘은 맥추감사절이다. 맥추감사절을 맞아 오늘 I · II · III부 예배 시 맥추감사헌금을 드린다. 또한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현대에는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킨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받음을 잊지 말고 교회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 드리자.

2022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7월 16일(토) 영·유아부 유치부를 시작으로

2022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으로 이뤄지

는 첫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로 모든 진행에 차질없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담당 교역자, 교사, 학생, 학부모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제	일시	장소	담당교역자
영·유아부	찾았다, 하나님 나라!	7/16(토) - 17(주일)	교회	강남희 전도사
유치부	찾았다, 하나님 나라!	7/16(토) - 17(주일)	교회	허은 전도사
유년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	7/23(토) - 24(주일)	교회	조동수 목사
초등부	교회가 좋아요	7/22(금) - 23(토)	아가페타운	이대원 전도사
중·고등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청소년	7/29(금) - 31(주일)	아가페타운 교회	정기성 전도사 김예지 전도사
청년부	엑소더스	8/12(금) - 13(토)	아가페타운	안용곤 목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유성근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장하랑 최윤학 이강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식당이용 안내

- 배식 시작 : 오전 11시
- 배식 종료 : 오후 1시 10분
- 모든 식기 반납 : 오후 1시 25분

* 잔반을 남기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설거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과 남을 배려하는 서울교회 교인들이 됩시다.

7월 한 달 동안 순례자를 통해 2022 상반기 선교보고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로의 사명을 온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보고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서울교회 손달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선교위원, 중보 기도팀 및 성도 여러분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인사드립니다. 참으로 길고 긴 터널과도 같은 어둠과 힘든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힘으로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내왔습니다.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심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현재 방글라데시 상황은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고 백신 접종도 어렵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은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이 곧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이 땅에 모기로 인해 오는 뎅기 열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약이 없는 상태라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질병입니다.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와 뎅기 열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저희들이 모여 진행하였던 목회자 훈련은 현재 온라인으로 매주 1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정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대면 세미나 못지않게 뜨거운 열기로 서로 토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함께 모여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북쪽 사역지 연합 청년 및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계속 세미나를 통해 복음의 일꾼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이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니아못뿔 지역과 고팔바리 지역 여성들의 리더십과 자립(봉제 및 양계)을 위한 세미나와 조혼 그리고 결혼 지참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가정의 어려운 생활로 인해 어린 자녀를 결혼시키

는 일이 계몽에도 불구하고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가 문을 닫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저희 쇼키블 센터에 있는 중·고등학교 여학생 중에 15명이 결혼을 하여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들의 나이 고작 12 - 16세의 나이인데 말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태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들의 가정 자립을 위한 기술 교육과 세미나, 그리고 조혼에 대한 계몽이 무척 필요한데 지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4. 니야못뿔 교회에서 개척한 빨보바니뿔 교회 건축과 새롭게 개척한 기도처들의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건축이 잘 진행되고 이 교회와 기도처가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5. 반돌본지역 정글에 흩어져 있는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고 입양하기 위해 6명의 새로운 주의 일꾼을 뽑아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1,000여 개의 마을에 이들을 통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가지 감사한 것은 지난 7월 코로나가 한창 극성일 때 반돌본에 있는 무롱부족 깔리아초라 마을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 목회자 가정을 포함한 모든 마을 사람들이 확진되어 엄청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 다카 빈민촌에 있는 모자보건센터(탁아방과 임산부 케어센터)를 위해 한국 단체인 "우리는 친구"에서 의약품을 공급해 주어서 코로나 시기에 큰 힘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다카 빈민촌에 있는 알로끼또 미션 스쿨에 러빙핸즈 단체의 후원으로 쇼키블 미션 센터에 이어 제2 초록 리본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지역 청소년들이 양서를 많이 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다카 근교에 방글라데시 장로교회 미션 센터(교단 본부와 교회, 기숙학사 그리고 게스트 하우스 등)를 위한 토지를 구매하고,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 현재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주인에게 지역 관리사무소에서 주택단지에 사무실을 둘 수 없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거의 6년 동안 잘 사용해 왔는데 할 수 없이 직원들과 함께 다른 지역에 거할 처소를 찾으려고 합니다. 합당한 건물(방글라데시 장로교회 본부, 호프방글라데시 본부, 대학생 기숙사, 은혜 교회당 및 세미나실 등이 들어갈 수 있는 4층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9.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부부가 항상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제 아내 송은옥 선교사의 몸이 예전 같지 않게 온몸이 아프고 힘이 없습니다.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게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경엽 · 송은옥 선교사

오마바빠 선교센터가 새 장소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새 장소 감사예배는 1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사람들이 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를 뚫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30퍼센트의 참석자는 이슬람이었습니다. 허잡을 쓰고 참석한 여성, 이슬람 모자를 쓴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예배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마을의 축제로 생각해 주었습니다.

안산 빛내리교회 당회장 박상기 목사님께서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새 장소 감사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200개의 도시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100개 이상의 도시락이 참석자들에게 제공되었고 남은 도시락은 마을을 돌며 동네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비가 그쳐서 참석하지 못한 마을 주민들에게 도시락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도시락을 나누는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 주셨습니다.

이슬람 주민, 기독교인 주민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찾아갔습니다. 모두 반겨주었고 비

가 너무 많이 와서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미안하다는 말도 같이 전해 주셨습니다.

도시락과 함께 서울교회에서 주신 비타민들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뽀로로 비타민, 어른용, 어린이용 멀티비타민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민들은 비타민을 받으며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는 마을의 통장님이 오셔서 환영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오마바빠 선교센터가 마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통장님은 이슬람이십니다. 설교를 해 주신 수기양 또 목사님께서는 비가 오는데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온 것에 아주 놀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기후를 주관하시어서 저희가 직접 가정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예배 후에 비를 그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예배 다음 날에 이슬람 어린이 4명과 기독교인 어린이 2명이 더 와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선교사는 중보기도로 삼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 시범과 피아노 연주회를 했었는데 그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예배와 도시락 나누는 일로 정신없이 바빠서 도시락 나누는 사진을 미처 찍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주차장과 앞뜰에서 머물러서 비에 젖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모습을 차마 사진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과 비타민을 나누며 보여주기 위한 나눔같이 보여 사진을 찍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신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 되었습니다.

감동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여 주신 동역자님들과 상품을 제공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동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물품을 제공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1. 오마바빠 선교센터를 농동자와 같이 지켜주소서
2.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소서
3. Gently Club 성경학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소서

서광중 · 이성일 선교사 올림



2022년 홍해작전 4행시 공모 결과

- 응모작 : 참여인원 36명, 총 88편 응모
- 응모 기간 : 6/20 - 6/25
- 심사 결과 : 7편 수상작 결정

- 사랑상 : 정금희 권사(1교구)
- 믿음상 : 김문범 집사(2교구)
- 소망상 : 임채언 성도(5교구)
- 장려상 : 한대석 집사(5교구)
박혜옥 권사(8교구)
한혜선 집사(4교구)
송인혁 성도(2교구)

정금희 권사 (1교구)

홍: 홍해바다 건너가서
해: 해야할일 무엇일까
작: 작정하고 기도하니
전: 전도사명 다하라네

김문범 (2교구)

홍: 홍해가 가정과 일터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해: 해마다 서울교회에서 개회하는 '홍해작전'에 오세요
작: 작심하고 6.6 현충일부터 6.25까지 새벽기도회 오시면
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벽마다 넘치고 넘칩니다.



▲ 6.25(토)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축복기도
▼ 6.26(주일) 찬양예배 시 가진 시상식



여름성경학교 초대 유치부

찾았다~ 하나님나라!



임종현 집사
(유치부 부장)

“이르시되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15)”
대부분의 경기가 그러하
듯 전반전이 끝나면 성공적
인 후반전을 위해 반드시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22
년의 후반전을 알리는 7월, 저희 유치부에서
는 완전한 경주를 위해 7월 16일 - 17일 이틀
에 걸쳐 하프타임 즉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
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져가는 우리
유치부 학생들을 보면 하반기의 기대감과 함
께 앞으로 시작될 여름성경학교가 얼마나 중

요한 지 되새기게 됩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유치부 여름성경학
교의 주제 성구와 같이 과연 때가 왔고 하나
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아 나서는 유치부 학생들에게 관심과 전폭
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치부에 출석
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나이의 손자 손
녀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여름성경
학교를 기회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비대면의 시대를 살며 잃어버린 일상
을 회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바빠 달려온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무엇보다 하나님
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
우셨고 지혜와 힘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
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년부 친구 초청잔치를 마치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라!



이승준 집사
(유년부 부장)

“선생님! 다음에 친구 데
리고 와도 되요?”

“데리고 와! 함께 예배하
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여학생의 이런 질문에
용기를 얻어 계획된 이번
친구 초청잔치는 흥재작전
과 맞물려 아이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흥해를 건너 하나님의 땅
으로 들어가 보자는 취지로 단계별 미션을 정
해주고 이를 달성하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초청잔치를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몇 명의 아이들이 올까? 아직 코로
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올 수 있을까? 우리 아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보면 대치동이 아니
라 교회와 먼 곳에 주로 사는데... 고민만 한
가득이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가운데 시작한 행사가 한 주
를 앞두고 초청장도 만들어지고, 그 초청장에
조그마한 초대 선물도 함께 준비되어 우리 학
생들의 손에 쥐어지니 좀 더 담대한 마음도
들고 비장함도 감돌았습니다. 제자들을 떠나
보내는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그 초대장
과 선물과 함께 세상에 떠나보내는 심정이었
습니다.

‘가서 꼭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진심을
담아 전해주렴!’

그렇게 믿음으로 전달된 아이들의 초대에
총 7명의 아이가 참석하겠다는 결과를 학부

모님들을 통해 주중에 계속 연락받게 되었습
니다. 더 솔직히 이 행사는 우리 학부모님들
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행사
였습니다.

‘대단하다! 7명이나 오다니!’ 인원수도 대
단했지만 아이들의 초청을 물심양면으로 도
와주신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열성적
인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다고 생각했
습니다.

6월 26일 주일이 되고 행사가 시작되었습
니다. 7명의 아이들을 기다리던 저희는 오랜
만에 교회에 나와 유년부에 참석하겠다는 2
명의 학생과 방학이라 잠시 한국을 방문한 2
명 그리고 5월에 한번 잠시 방문했던 학생 한
명까지 더해 5명이나 더 찾아와 기존의 7명이
아닌 총 12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기존의 19명
학생들과 701호에서 함께 예배하는 상황
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분주했지만 모든 행사는 베테랑 유년부 선
생님들의 일사분란한 움직임 가운데 무사히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은혜로
운 말씀과 젊은 청년 선생님들이 준비한 찬양
과 율동 시간 그리고 활동 시간으로 이어진
이날의 예배와 행사는 참 알차게 잘 진행되
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난 자리에 교사들은
함께 모여 사그라지지 않은 감정의 여운을 서
로 나누며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앞으
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서울교회 교회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나누며 다음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서
로가 깨닫고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늘 아이들의 행사 사진을
차근차근 돌려보면서 오늘 우리 유년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무엇
이었던지 이해하고자 계속 기도와 생각을 거
듭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참으로 오랜 시간 우리
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길 기다리고 계셨
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냥 그물을 던
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다음세대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다음세대의 중요성을 애
기하는 만큼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회가 되
기 위해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유년부는 여름성경학교를 준비
합니다. 친구 초청잔치의 여운을 잘 연결하여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성경학교로 모여 함
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친교하는 시간
을 가져 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
해 주심은 물론이고, 아직도 많은 교육부서
에서 필요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
해 우리 유년부를 포함한 서울교회 전체가 한
마음을 품고 그간 하지 못했던 전도의 사명
을 가슴에 품고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며 다음
세대가 찾아오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참과 협력을 기
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기학교 1기 수료식을 마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도록 헌신적으로 돌보겠습니다



유미영 권사
(아기학교 교사)

처음 아기학교 교사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이 시작되고 긴장과 떨림으로 첫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교사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2주 차, 3주 차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눈망울과 표정들이 저에게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창의적이며 집중력이 뛰어난 희엘이, 표정이 너무나 예뻐고 활동적인 사랑스러운 헤슬이, 아기학교의 마스코트이며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수아까지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에 반해 저는 긴장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아기학교를 섬겨주신 박만

옥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아이들을 잘 돌보시는 훌륭한 교사, 엄마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 강남희 전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렘과 긴장으로 시작된 아기학교 수료식을 마치며, 2기 가을 학기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도록 헌신적으로 돌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위원 모집

주일 1. 2. 3부 예배, 찬양예배 안내 위원
주일 1. 2. 3부 봉헌 위원을 모집한다.

* 문의 : 채교천 집사 (010-6444-2502)

교회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후 위기, 환경오염이라는 단어는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기에 '위기'라는 단어가 가진 절박함과 긴박함이 많이 희미해졌다. 아직도 기후 위기가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거나 혹은 자신과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과학적 통계와 수치를 통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변화를 통해, 기후 위기가 급격히 다가오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회가 앞장서서 이 시대적 사명에 동참하고자 '교회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작한다. 먼저 6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하반기에는 교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가 편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인 지구는 더욱 병들 것이다.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회의 바른 변화에 공명(共鳴)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교회 직원 채용 공고

- 경리(회계) 담당, 식당 담당 -

올해 말 정년이 되는 교회 경리(회계) 담당자의 후임 직원과 교회 식당에서 상시 근무할 직원을 미리 채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 자격과 조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정

■ 식사 제공 : 7교구 김시환 집사 · 김정란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드리며)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4일	월	시 103-105		창 1-7	
7월5일	화	시 106-107		창 8-13	
7월6일	수	시 108-112		창 14-19	
7월7일	목	시 113-118		창 20-24	
7월8일	금	시 119:1-80		창 25-30	
7월9일	토	시 119:81-176		창 31-35	
7월10일	주일	시 120-129		창 36-41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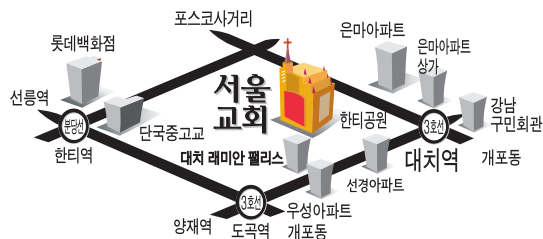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장마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서울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잘 헤쳐나가며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로 한 발자국 전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일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